



양축가 인식새로워지는 펠릿사료

펠릿사료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률 향상으로 인한 증체효과와 허실 방지이다.

펠릿사료 인식 새로워지고 있다

펠릿사료의 기원은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 원정의 멀고 먼 여로에 군용마에 건초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폴레옹 원정군들이 사각형의 틀에다 건초를 넣고 해머로 때려 입방체의 덩어리를 만들어 수송부피를 줄이고자 한 것이 펠릿의 시초였다고 한다.

이 펠릿사료가 배합사료로 활발하게 전용된 것은 약 40년전 부터로 현재는 고기를 이용하는 가축에 많이 응용하며 미국에서는 현재 육계사료의 100%를, 육우를 비육돈 사료의 대부분을 펠릿화하여 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79년부터 2개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80년도의 극심한 불황으로 일반 배합사료보다 가격이 약간 비싼 이 펠릿사료가 별로 양축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공장측에서 예상한 확장을 별로 보지 못한 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계속 문제되는 사료 유래 질병 문제와 품질 문제로 일부 양축가들 사이에 펠릿사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에 육계용, 비육용, 육성돈용 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신촌사료의 펠릿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펠릿사료의 장단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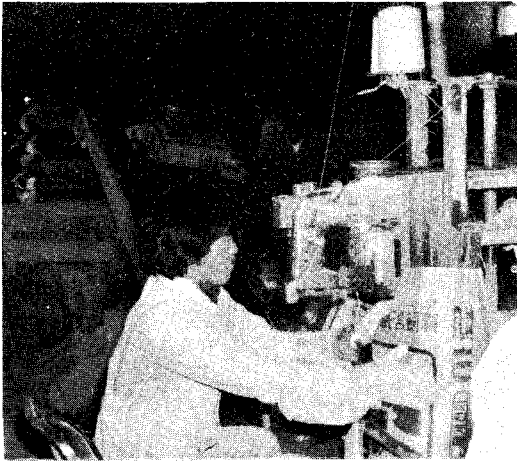
펠릿사료 한국 첫 상륙은 70년 부산 농협에서 송아지 사료로 성공

우리나라에 이 펠릿사료가 처음 생산된 것은 1970년 6월 중순으로 군산 제일 사료에서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10년이 지난 79년 대한제당 무지개 사료와 80년 신촌 사료에서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외 양계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산 농협 사료공장의 송아지 인공유 사료는 큰 성공을 거두어 낙농업자들은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 펠릿사료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곳과 기계를 발주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어 앞으로 생산은 계속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다.

펠릿사료의 제조공정은 일반 배합사료 공정



생산가동량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펠릿 사료공장. 일반 양축가들에게 펠릿사료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에 압착, 냉각, 건조, 정선 등의 특수가공 공정이 한단계 추가된 것으로 이 사료의 일반적인 장점은 사료 효율이 좋아지고 사료의 먼지와 허실이 줄어들며 고압으로 처리되어 살모넬라균이나 곰팡이를 없애 주며 편식을 방지하고 소화율을 높이며 무엇보다 증체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각 실험 결과 증명되고 있다.

밀기울 등 소화 어려운 저에너지 사료 소화율 높이는 효과 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에너지 사료인 밀기울과 탈지강 등 강피류 함량이 높은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50-90°C의 증기로 찌내는 가공 공정과 고압가열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소화되기 쉬운 것으로 변할 수 있게 되므로 권장되는 사료가공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배합 사료의 1/2이 펠릿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일본도 일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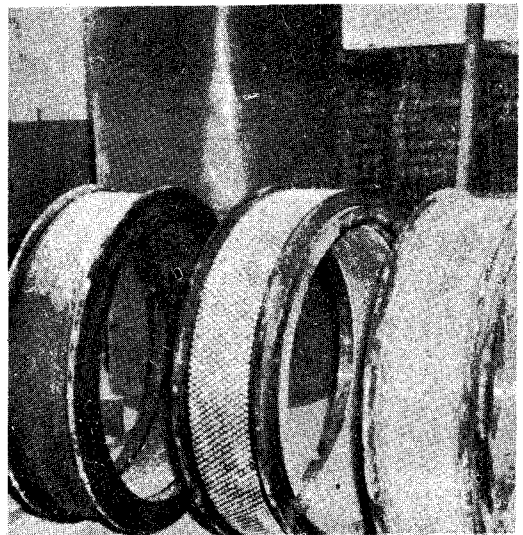
사용되고 있고 대만도 활발하게 펠릿사료의 사용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향후 5년내로 비육 사료는 많이 펠릿化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격 비싸나 사료효율 면으로 상쇄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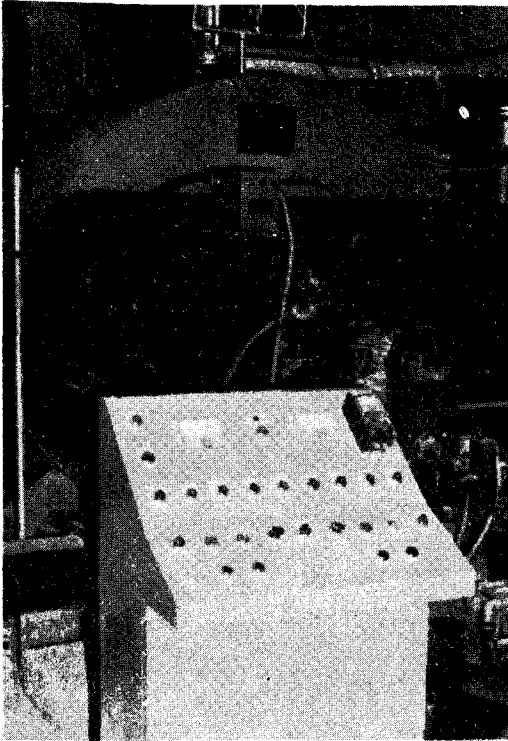
이 펠릿사료의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다.

이 펠릿사료를 생산해 내기 위한 시설로 펠릿기계와 다이 보일러 등 2억 가까운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의외에 인건비 기계감가상각비, 소모품비를 합치면 톤당 5000원 정도의 부과비용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선촌 펠릿사료 생산 담당자의 얘기이다.

지금 외국에서도 이 펠릿사료가 사료섭취량의 증가, 기호성의 증진, 사료효율의 개선 등 영양 가치의 개선과 원료와 제품의 개선



펠릿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 소모품비가 뒤따른다. 사진의 펠릿다이는 1개에 3,000\$ 가량 하는데 6,000톤을 생산하면 새로 길아 끼워줘야 한다.



펠릿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보일러. 이 과정에서 고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경제성이 검토되고 있다.

된 취급 방법을 높이 인정하고 있으나 에너지가 와 노임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현재에도 펠릿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다.

현재 신촌 사료는 kg당 5원을 더 받고 있고 대한제당은 3원을 더 받고 있으며 신촌 사료에서 생산되는 펠릿사료 제품은 직경이 1~2.8mm 초생추용 크럼블 사료와 육계전기, 육계후기 사료 육성돈 용과 송아지용 등이 생산되고 있다.

이중 크럼블 사료는 초생추부터 4~6주령까지 급여하는 펠릿을 재 분쇄하는 공정을 거치는 사료로서 생산 효율이 육계후기 사료의 1/2밖에 되지 않으나 가격은 육계 후기와 같이 받는다.

펠릿사료 질에 대한 규제 방안 아쉬워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펠릿사료의 질에 관해서는 규제할 아무런 방안이 없으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조도에 관한 규제도 할 수 없어 사료공장 측에서 악용할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루사료와 달리 입자를 가루보다 더 잘게 갈아서 다시 펠릿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분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양심적인 제조를 바라고 믿고 사쓰며 천천히 확인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에 기술한 장단점과 문제점외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양축가 측에서는 기록을 통한 정확한 분석으로 스스로 보다 경제성있는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펠릿사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펠릿사료를 80년 9월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육계 생산자 박병식씨(효원농장)는 펠릿사료를 사용하는 소감을 아주 좋게 이야기한다.

“닭들이 편식도 없어졌고 성장 과정에서 폐계량도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장기간도 길어져서 펠릿사료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닭장사들에게 저희 농장 닭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닭장사들 말로는 살도 좋고 내장의 비율도 적어 감량이 덜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펠릿사료를 먹으면 내장이 적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 보고는 없으나 몇군데 사용자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곳도 있으며 한편 수궁이 가는 얘기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 펠릿사료가 본격적으로 시판되기 시작한지 이제 1년 남짓한 동안 현재 펠릿사료를 생산하는 두 회사는 우리가 알기에



펠릿사료를 사용하고
부터 여러가지 효과를
누려 다른 양축가에게
사용 권장하고 있다는
박병식 사장.

도 별 재미(?)를 못 보는 채 선구자적 결손
을 감당해 내고있다.

배합사료 공업이 지난 10년동안 양적인 발
전은 있었으나 질적인 발전은 별로 없었다는
여론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한 걸음 앞선 가공

방법으로 뒤 늦게 선 보인 이 펠릿사료가 양
축가들의 신중한 검토속에 간신히 명맥을 이
어가는 현 상태를 벗어나 활발하게 생산되거
를 바라게 된다. (安)

수원가축약품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750-66
(청림예식장 1층)

☎ (수원 2-2583)

축산인의 사랑방

가축질병·사양관리상담

가축약품

축산기구

기타축산관계일체

